

BASIC BIBLE TEACHING # 1

THE BIBLE

① The Bible is the most important book ever written. It is the Word of God. He told the men who wrote it what they must write down.

② The Bible is not one book. It is a collection of 66 books written at different times by different men.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that are called testaments.

③ The Old Testament has 39 books. The New Testament has 27 books.

④ The word 'Testament' means agreement or covenant. The Bible tells us about agreements made between God and men.

⑤ There is an Old Agreement and a New Agreement.

⑥ At the beginning of the Bible is a list of all the names of the 66 books. It will help you in your studies if you can learn the order of the books.

⑦ Each book is divided into chapters and each chapter into verses. When you look for a verse or quotation from the Bible, the name of the book will appear first, then the chapter, and then the verse. For example: John, chapter 3, verse 16. In these lessons this will be written as John 3:16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⑧ If you have a Bible, look up this verse for yourself and try to learn it.

⑨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were writte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 man called Moses wrote the earliest books about 1400 years before

성서의 기초 강좌 제 1 과

성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어떤 책보다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꼭 써야 할 말씀을 사람에게 쓰도록 하였다.

성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진 66 권의 책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구약은 39 권으로, 신약은 27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Testament'는 협정 또는 언약을 의미한다. 성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 알려준다.

옛 약속(구약)과 새로운 약속(신약)이 있다.

성서의 첫 부분에는 66 권의 책 이름 목록이 있다. 이 책들의 차례를 익혀두면 성서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각의 책은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은 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서의 구절이나 인용구를 찾을 때, 책의 이름을 먼저, 다음에 장을 그리고 절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본 강좌에서는 요 3:16 로 나타낸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구절을 찾고 외워 보자

구약 성서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쓰여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400 여년 전에 모세는 성서의 가장 앞 부분을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as born. We write this as BC1400. A man called Malachi wrote the last book in the Old Testament about BC400. The Old Testament took about 1000 years for all 39 books to be written.

¹⁰ The New Testament books were written over a much shorter period of about 60 years. The earliest book, probably the Gospel of Mark, was written about 40 years after the birth of Jesus Christ. We write this as AD40. The last book was written about AD96. It is calle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썼다. 우리는 이 때를 BC 1400 년경이라고 쓴다. 말라기라는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책을 BC 400 년경에 썼다. 구약 39 권의 책이 모두 쓰여지는데 약 1000 년의 시간이 걸렸다.

신약은 훨씬 더 짧은 60 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은 예수가 태어나신 때에서 약 40 년 후에 쓰여졌다. 우리는 이 때를 AD40 년이라고 쓴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약 AD96 년경에 쓰여졌다. 이것을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부른다.

THE BIBLE					
Old Testament of 39 books			New Testament of 27 books		
The Law	The Prophets	The Writings (poetry)	The Gospels & Acts	Letters	Prophecy
5 books	17 books	17 books	5 books	21 books	1 book

성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율법서	예언서	기록(시)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	서신서	예언서
5 권	17권	17 권	5 권	21 권	1 권

¹¹ In the Old Testament, the books of the Law tell us of all the laws God gave for men and women who lived under the Old Agreement. The books of the Prophets tell of events long before they happened, and of events yet to happen in the future. They also tell us of the history of the Jewish nation. The Writings contain songs of praise to God called Psalms, and Proverbs which are wise sayings to help us in our lives.

¹² In the New Testament, the four Gospels tell us about the life and death of Jesus. The book of Acts tells us of the early church after Jesus went up into heaven. Men, such as the apostle Paul, wrote the

구약의 율법서들은, 그 옛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에 대해 알려준다. 예언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그 사건들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또한 유대민족의 역사도 나와있다. 기록에는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 있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말해주는 잠언서도 있다.

신약에는, 예수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기록된 4 복음서가 있다. 사도행전은 예수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의 초대 교회에 대해서 말해준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몇 명은, 교회 안에 있는

letters to disciples in the churches. These letters helped them in their new lives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Finally, the book of The Revelation is a prophecy of world events that happen after the death of Jesus and before his return to set up God's kingdom.

¹³ The Bible is also called the 'Scriptures' which means 'something written'. The Old Testament was mostly written in a language called Hebrew. It was written on long strips of paper called papyrus. These were rolled up into scrolls. Later the Old Testament was translated into the Greek language.

¹⁴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in Greek. It was also written on papyrus and afterwards on strips of animal skin called parchment.

¹⁵ Later, both Testaments were written by hand on pages of paper and made into books. They were very rare and expensive. Today printed Bibles are available for almost everyone. This is a great blessing from God.

¹⁶ The Bible has been translated into many other languag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lations was made nearly 400 years ago. A king of England commanded a new translation to be made into English so that ordinary people could read it. This is now known as the King James Version or KJV. Recently the Bible has been translated into more modern English. In these lessons we will use a simple version called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or NIV.

¹⁷ Whatever language the Bible is translated into, the message is always the same. It is God who speaks to us through the pages we read. This makes the Bible quite different from any other book we read. The men who wrote it did not write down their own ideas; God told them what to write. This is called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¹⁸ Look at these verses: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새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일어날 세상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나라 수립을 위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기록이다.

성서는 또한 '기록된 어떤 것'이라는 의미의 'Scriptures'라고도 불리운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이것은 파피루스 라고 불리우는 식물의 긴 껍질에 쓰여졌다. 이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로 둘둘 말려 있었다. 구약은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이것 역시 파피루스에 쓰여졌다가 양피지라고 불리우는 동물의 가죽에 옮겨졌다.

후에 신구약은 사람이 종이에 손으로 써서 책으로 엮어졌다. 그것은 매우 귀하고 비쌌다. 오늘날 성서는 인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성서는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번역본중 하나는 거의 400 년 전에 쓰여졌다. 영국의 한 왕이 영어로 번역하기를 명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킹제임스역 또는 KJV 로 알려진 번역본이다. 최근의 성서는 보다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좀 더 쉬운 번역본인 새 국제 번역본 NIV 를 사용할 것이다.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든지 그 전하려는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 우리가 읽는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서와 다른 책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 성서의 기록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것을 성서의 '영감'이라고 부른다.

이 구절들을 보자:

2 Samuel 23:2

'The Spirit of the LORD spoke through me; his word was on my tongue.'

Jeremiah 36:2

'Take a scroll and write on it all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concerning Israel, Judah and all the other nations from the time I began speaking to you in the reign of Josiah till now'

¹⁹ Here are two men, King David and the prophet Jeremiah, who clearly tell us that the words they wrote came from God. The apostle Paul wrote these words in the New Testament about the Bible.

2 Timothy 3:16-17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²⁰ God, through his Holy Spirit power, guided and directed men to write down his words for a specific purpose. His words are given to us so that we know about God and his purpose for us and for the whole earth. The only way to understand him is by reading the Bible and by praying to him for help to understand it. The Apostle Paul tells us this very clearly:

Romans 15:4

'For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so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²¹ Any hope we have for a better life in the future can only come from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Word of God and by following his commands to us. The rest of these lessons will help you to understand more about this.

사무엘 하 23:2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예레미야 36:2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할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다윗왕과 선지자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기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이 말씀들을 썼다.

디모데 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 쓰도록 성령의 힘으로 안내하고 지시하셨다.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서를 읽는 것과 이해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로마서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미래에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하고자 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의 명령에 따름으로 가능하다. 본 강좌의 나머지 공부는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Questions

1. Which books tell us about the life and death of Jesus?
2. What does 'Testament' mean?
3.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Bible ?
4. What is 'Inspiration'?
5. What must we do to understand God's message?
6. Make your own list of the books of the Bible.

질문

1. 어떤 책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나?
2. 'Testament'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성서에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가?
4. 영감이란 무엇인가?
5.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6. 성서의 목록을 만들어 보시오.